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의 수업평가 모형 개발 연구

채희락 · 윤정미 · 최인철

1. 연구 목적¹

사회가 개방화, 국제화되면서 국외 대학과의 직접적인 교류 및 사회 계 분야에서의 국제교류가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필요한 교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정보시대를 잘 개척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내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된다. 이런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외국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투자 시간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각계 각층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전부터 기초적인 준비는 시작되었으나 93년 3월부터 94년 2월까지 하나의 연구과제로 책정되어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듣기와 읽기 위주의 중·대단위반 강좌를 신설하여 이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의 회화 위주의 소단위반 강좌를 개선하고 보강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았다.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학생들이 현실적인 요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진학, 취직 등에

¹ 본 연구는 1993년 3월 당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이영숙, 채희락(연구책임자)과 최인철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이영숙은 전반부에만 참가했고 후반부에는 연구원 윤정미가 참가하였다. 연구비를 지원해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감사한다. 특히, 당시 소장이었던 박남식 교수님과 주완수 과장님의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² 이러한 문제점은 영어영문학 전공자들보다 오히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필요한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제 교류를 원만하게 하고 국제 정보를 원활히 흡수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호흡하는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이상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 보면,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던 외국어 교육 전 과정에 대한 평가 방안을 연구하여, 당시 어학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계량화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마련하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업평가의 모형을 개발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중점적인 과제이었다.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설문조사의 결과를 잘 분석하여 외국어 교육 과정의 개선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과 더불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연구하려고 했다.

2. 기존 외국어 교육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³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살펴 보면, 무엇보다도 듣기와 말하기 교육 자체의 소홀을 들 수 있다.⁴ 중등과정의 영어교육이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조차도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에서의 (교양) 영어교육은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구어 교육은 듣기만 한 학기 동안 주 1시간씩 총 16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많은 학생들이 국제간의 교류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국제간의 학문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있지만 영어의 듣기/말하기 능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학자 초청강연회, 국제 심포지움, 교환교수 강의, 위성통신 강의 등 유용한 정보 교환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언어장벽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단과대학에서 기존 강독 위주의 교육보다 듣기/말하기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해 오고 있다. 학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분야에서도 국제간의 교류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영어의 듣기/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영어 듣기/말하기의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살펴 보

³ 여기서는 주로 영어에 국한시켜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겠지만, 다른 외국어의 경우에도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

⁴ 본 보고서에서 기술되는 현황 및 문제점은 93년 이 연구가 시작될 무렵에 간파된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현재형으로 기술한다.

면, 첫째로, 듣기/말하기 교육의 절대적인 시간 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위해서는 약 720시간 (하루 2시간×주당 6일×60주) 정도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Newmark 1971), 현재의 대학 재학중에 받는 총 16시간의 듣기 교육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로, 강사의 구성 및 수업 방법의 문제가 있다. 영어의 듣기/말하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수나 강사가 아닌 T. A.(강의보조자)가 대단위의 반에서 듣기에 국한된 수업을 피동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으며, 가르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강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로, 동기유발 요인의 결여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취직이 상대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타대학의 학생들보다 실용영어 실력의 중요성을 덜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의 듣기/말하기 (Lab.) 수업의 성적 반영 비율이 고작 교양 영어의 10%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다음으로, 영어의 읽기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자. 우선, 독서 능력 배양의 소홀을 들 수 있는데, 중등과정의 영어교육은 문법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독해는 단순히 구체적 문법사항의 설명을 위한 예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은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독이 아닌 정독 중심의 강의이기 때문에 소량의 원서만 대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학생들이 유학, 취직시험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영문에 대해서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결과 새로운 정보의 흡수에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분량의 원서만을 대할 수 있을 뿐이며, 이나마 몇몇 명작 소설이나 수필에서 발췌된 것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화된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그때 그때의 시사성 교양과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가 시작될 당시에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강의를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었다. 종합적 영어지식이나 독서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강의를 공식적으로 개설된 것이 서울대학교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의는 취직이나 유학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수요에 편승하여 사설 영업기관에 의해 많은 강좌가 교내에서 제공되고 있었지만 다분히 상업적인 성격만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교재선택이나 강사진 등에 문제가 많았다.

영어의 듣기/말하기 분야와 읽기 분야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각각 살

퍼 보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면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을는지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읽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의 중·대단위반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다 (4장 참조).⁵ 그리고 동기 유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와 독해 과목에 대해 S/U제도 (급락제도)를 채택하여 졸업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외국어 실력을 의무적으로 쌓게 하는 것도 강력한 동기 유발의 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 효과적인 수업관리, 어학능력 평가서 발급, 포상제도 마련 등을 통해서 동기 유발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수업관리를 위한 한 방법으로 진단·형성·총합평가 등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 방법으로 각종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외국어 교육 강좌의 실 수요자인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강좌를 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지를 먼저 알아 보는 것이 좋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학생들의 요구 중에는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요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아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Q1)가 있다. 둘째, 강좌 시작 전 수강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내용, 강의방식 등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인 “수업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Q2)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난 후 그 강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한 “수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Q3)를 작성했다.

설문지는 Q3가 제일 먼저 작성되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Q2와 Q1이 만들어졌다 (<부록 2-1/2/3>⁶ 참조). 이들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는

⁵ 실제로 반의 규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만, 우수한 강사의 확보, 재정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중·대단위반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신망을 활용한 외국어 강좌의 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⁶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Language Questionnaire”와 “Course Evaluation Form” 그리고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Course and Instructor Evaluation Form”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Q3를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에 한 번씩 4회 실시했으며, Q2를 봄, 여름, 가을 학기에 3회 그리고 Q1을 가을 학기에 1회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매번 분석하여 학기별로 교육과정의 수립에 반영하였다.

4. 강좌 변천

“어학연구소 외국어 강좌 변천 과정” (<부록 1>)에 나타나 있듯이, 이 연구가 시작되기 직전인 '92학년도 겨울방학 동안에는 영국인 강사 2명이 가르치는 영어회화반과 일본어 강사 2명이 담당하던 일어 문법·독해반의 강좌밖에 없었다. 이런 정도의 강좌로는 학생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더불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선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강사 사정, 재정 상황 등의 현실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중·대단위반의 개설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강좌들을 염두에 두었으며 설문조사의 결과 등의 상황에 따라 신설이나 증설을 하기로 하였다: 유학, 취직시험 준비를 위해 종합적으로 영어를 강의하는 TOEFL반, 유명 일간신문이나 주간지 (Time, Newsweek 등) 강독을 위한 시사영어반, 대중성이 있는 명작소설이나 베스트셀러류의 시사성 교양지 강독을 위한 영문명작강독반, 단어와 숙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휘반, 명작영화나 AFKN 등의 방송청취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급영어청취반 등. 영문명작강독반은 분야별로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분반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쓰기 교육을 위한 초·중·고급의 (소단위) 영작문반, GRE 준비를 위한 반, 논문작성 방법을 가르치는 반, 독서기법(reading techniques)을 키워주는 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도 중·소단위 반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50명 규모의 일본어 초급반과 20명 규모의 불어반을 먼저 개설하고 독어나 노어 등의 언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회화 중심의 소단위반을 개설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강사진의 구성을 살펴 보면, 소단위반 중심의 영어회화와 영작문은 영어 모국어화자인 영국인이나 미국인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강사의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학위 소지자라도 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채용하였다. 고급영어청취, 시사영어 등 중·대단위반의 경우에는 어학연구소 전임 연구원들이 강의를 맡았다. 연구원은 모두 영미지역에서 영어교육학 혹은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이었다. 일본어와 다른 외국어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국어화자만을 강사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연구가 진행된 1년 동안에 일어난 강좌상의 주요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 1> 참조).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어청취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부록 3> (나)의 문항 (4)에서 볼 수 있듯이, 청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았다. 중단위반인 고급영어청취반은 처음에 1반으로 시작했지만 1년 뒤인 '94년도 봄학기에는 10개 반이 되었다 (1반→4반→5반→6반→10반). 대단위반인 TOEFL 청취 강좌도 1반 신설되었으며 그 후 2개 반으로 증설되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영어회화반이 증설되고 영작문반이 신설되었다. 영어회화와 영작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으나 (<부록 3> (나)의 항목 (4)와 (5) 참조), 모국어화자 강사들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불어와 서반아어 회화반의 신설과 일어반의 강화이다. 일어반은 모국어화자 강사들을 채용하여 기존의 문법·독해반을 더욱 내실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회화반도 신설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강좌 변화는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5.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

설문조사는 Q1을 가을학기에 1회 실시하고, Q2를 봄, 여름, 가을 학기에 걸쳐 3회 실시했으며, Q3를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에 4회 실시했다. 이 중에서 Q1과 Q2가 어학연구소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강좌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설문조사이므로, 여기서는 이들 설문지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겠다. 각 항목에 대한 반응의 구체적인 수치는 “설문조사 결과” (<부록 3>)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주요 항목을 서술적으로 간단히 기술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만 보이겠다.

각 강좌에서 사용하는 의사 전달 매체로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영어와 우리말을 혼용하거나 영어만 사용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같은 과목이 2반 개설될 때는 1반은 영어만 사용하고 나머지 1반은 혼용하기로 했다. 영어회화반에서는, 물론, 영어만 사용하고, 고급영어청취는 반수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힘든 청취교재의 특수성 때문에 주로 혼용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강좌 중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진단평가 (배치고사), 형성평가, 총합평가

등의 시험을 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행정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밖에 실시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물은 항목에서는 고급영어청취와 영어회화의 수요가 상당히 컸다.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급영어청취반을 증설해 왔으며, 영어회화반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늘렸다. 증설·신설을 원하는 과목으로는 GRE반의 요구가 많았으며, 영작문의 수요가 절대적이었다. 여름학기부터 GRE반이 개설되었으며, 겨울학기부터는 영작문반이 개설되었다. 영작문반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늘려가기로 계획했다.

평상시 학기 중의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로는 2회와 3회의 요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기 중에는 정규수업의 부담이 있으므로, 한 주에 2번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방학중의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로는 3회가 많으며 그 이상도 있었다. 방학중에는 한 주에 3번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모임당 수업 분량으로는 1시간반이 많으며 2시간도 제법 되었다. 학기 중에는 1시간반을 위주로 하며, 방학중에는 1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로 여건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평상시의 수업 시간은 오전 9시 이전을 선호하며 저녁 4시 이후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있었다. 이에 따라 대단위반 강의는 새벽이나 저녁에 개설하며 중·소단위반은 특별한 제약이 없이 낮 시간대에 주로 배치하였다. 방학중의 수업시간은 오전 9시 이전과 오전중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여름방학 때는 8시경부터 강의를 개설하며 겨울방학 때는 9시경부터 개설해 왔다.

6. 문제점 및 개선책

이 장에서는 각종 강좌를 운영해 오면서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 보고 어떤 개선책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출석률 감소를 들 수 있다. 어학연구소의 강좌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들은 외국어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는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처음에 등록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수는 정규과목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수업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Q3)의 결과나 강의실에서의 학생들 태도 등으로 판단하건대, 학생들이 강의 내용이나 강의 방식 등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구소 강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좌 후반부에서 출석률이 저조했던 원인은 첫째로, 강좌들이 비학점과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규 학점과목만큼 강한 동기(비록 외부적이고 강압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대단위

반의 경우) 강의를 새벽과 저녁의 불편한 시간대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⁷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강의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라는 응답과 바빠서라는 응답을 한 경우가 많았다 (<부록 3> 참조).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수업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도 출석을 저조의 한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다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체계적인 계획과 정책적 연속성의 부족에 대한 우려였다. 각종 프로그램과 강좌를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총괄/감독하고 연구 지원할 전임 교수는 한 명도 없고 인문대에서 임기제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수와 임시직으로 있는 연구원들에 의해 전체 프로그램이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의 수급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어회화와 영작문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유자격 모국어 화자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관리 인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수업관리를 위해 각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험을 치르더라도, 이를 분석하고 관리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므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적은 인원이 천명 이상의 새로운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또한 어학연구소의 위치가 학교 중심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위에서 그 동안에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그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수업 관리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단, 형성, 총합평가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출석 관리를 엄정하게 하며 시험결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진단평가(배치고사)의 결과로 일정수준에 도달한 학생들만 강좌에 받아들임으로써, 탈락한 학생들로 하여금 각성하여 스스로 공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로 반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기 중 출석관리를 엄정히 하고 정기적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수업의 효율을 더욱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결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된 개인별 성적 카드를 작성하고 총괄적 성적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항목별(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성적도 산출해야 할 것이다.

⁷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개설된 강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정규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강료를 따로 지불하고 수강하는 비정규과목이었기 때문에 강의는(특히, 대단위반의 경우에) 주로 정규강좌가 시작되기 전 시간인 새벽이나 정규강좌가 끝난 저녁에 개설되었다.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 수단으로는 정해진 과목에 대해서 S/U제도 (급락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졸업논문 제출의 선수 조건으로, 영어 청해 (회화)와 독해에서 평가를 받아 S를 받아야만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뛰어난 외국어 능력의 소지자는 과목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일련의 과목에서 자기의 실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영어 청해와 독해를 독립된 교양과목으로 채택하여 일정수의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교양영어의 일부로 (0.3학점) 청해 수업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제도의 채택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어려우면 희망 대학이나 희망 학과에 한하여 이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학연구소와 개별 대학이나 학과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각 대학·학과의 필요에 따라 어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강좌에 학점 (S/U 혹은 A/B/C/D)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학·학과의 정규과목과 시간 중복을 피하여 효과적인 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거나 개별 대학과의 연계성을 맺는 문제는 어학연구소 자체만의 노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강제적 동기부여 장치뿐만 아니라, 어학능력 평가서 발급, 포상제도 마련 등의 자발적 동기 유발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학능력 평가서는, 예를 들어, 강좌 끝무렵에 실시하는 총합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영어 구사력을 세분하여 절대평가 방법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평가서를 발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⁸ 이 어학능력 평가서는 해외 유학이나 회사 취직 등의 경우에 요구되는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포상제도로는 수강료 면제, 단기 해외 어학연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수혜자는 수업중 활동, 출석률, 시험 결과에 따라 나온 성취도, 각종 외국어 경시대회에서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위에서는 주로 수강 학생들을 위한 동기 유발 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이에 못지 않게 강사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강좌와 학생들을 대하느냐도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육성공에 관계

⁸ 현재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의 영어검정시험 (Seoul National University Criterion-Referenced English Proficiency Test)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없이 일정한 보상만 하는 체제로는 강의의 창의적 발달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보수 이외에 상여금과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Q3의 결과, 수업 참관 등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의 특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다.

그밖에도, 전임교수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조교 및 전산전문 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40개 이상의 강좌에서 2,000명에 가까운 수의 학생들에게 연중 계속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간강사로만 강의할 경우 수업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전체적 체계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전임교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재 준비 등의 강의 보조적 일을 할 조교 및 일반 직원의 증원과 수강생 및 수강생 성적의 전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산전문 행정요원이 필수불가결하다. 영어회화와 영작문을 가르칠 모국어화자의 수급문제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유관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영어회화나 영작문을 모국어화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연구원이나 강사들이 분담하여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국어화자 강의를 수강하기 전의 기초반을 이들이 담당하든지 혹은 같은 반을 모국어화자와 공동으로 가르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외국인의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강의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소의 위치가 학교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순환도로를 도는 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면 다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업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원 충원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어학연구소 자체의 노력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와 정부차원의 재정, 인력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7. 활용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1993년 3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실시한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의 수업평가 모형 개발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새로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활용된 자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실시한 각종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갔다. 특히, 제공되는 강좌의 종류나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객관적 자료로 계량화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실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시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지만, 다른 대학이나 일반 기관에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의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교육내용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남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잘 활용하면 시대적 변화에 따르면서 그 내용을 적절하게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호권 외 3인 (1988) 현대교육평가론, 교육출판사.
- 박도순 (1984) 교육평가: 수업프로그램 평가를 중심으로, 배영사.
- 배호순 (1990) 평가의 원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 _____ (1992) 수업평가-수업효과 증대를 위한 평가적 접근, 양서원.
- 변영계 (1988) 수업설계, 배영사.
- Aleamoni, L. M. (1981) 'Student Ratings of Instruction,' In J. Millman (Ed.) *Handbook of Teacher Evaluation*, Sage, Beverly Hills, CA.
- Bae, Ho Soon (1987) *A Cross-national Study of Teachers Conceptions of Effective Teaching*,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Barber, L. W. (1990) 'Self-assessment,' In J. Millman and L. Darling-Hammond (Eds.), *The New Handbook of Teacher Evaluation*, Sage, Newbury, CA, 216-228.

- Braskamp, L. A., D. C. Brandenburg and J. C. Ory (1984) *Evaluating Teaching Effectiveness: A Practical Guide*, Sage, Beverly Hills, CA.
- Carroll, J. G. (1981) 'Faculty Self-evaluation,' In J. Millman (Ed.) *Handbook of Teacher Evaluation*, Sage, Beverly Hills, CA.
- Doyle, K. O. Jr. (1983) *Evaluating Teaching*, Lexington Books, Lexington, Mass.
- Foster, C. D., et al. (1984) *Selection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Development of a Teacher Assessment System*, Washington Univ, Teacher Education Research Center.
- Joint Committee on Standards for Educational Evaluation (1981) *Standards for Evaluational Program, Projects, and Materials*, McGraw-Hill, NY.
- Knight, J., et al. (1984) *Teacher Performance Evaluation Plan: A Personalized Approach to Supervision, Staff Development, and Evaluation*, An implementation guide, New Mexico State Dept. of Education, ERDS, Ed249574.
- Manning, R. C. (1988) *The Teacher Evaluation Handbook: Step-by-Step Techniques and Form for Improving Instruction*,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Millman, J. and L. Darling-Hammond, Eds, (1990) *The New Handbook of Teacher Evaluation*, Sage, Newbury, CA.
- Newmark, L. D. (1971) 'A Minimal Language Teaching Program,' in *The Psychology of Second Language Learning*, P. Pimsleur and T. Quinn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18.
- Nitko, A. J. (1983) *Educational Tests and Measurement: An Introduc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NY.
- Park, Nahm-Sheik (1994) 'Issues and Trends in Korea's College-level English-Language Teaching,' *Language Research* 30.1, 297-321.
- Rubin, Joan and Irene Thompson (1982) *How To Be a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er*, Heinle and Heinle.
- Silver, H. F. and J. R. Hanson (1990) *Teacher Self-assessment*, Hanson, Silver and Associates, Moores-town, NJ.
- Tuckman, B. W. (1985) *Evaluating Instructional Programs*, Allyn and Bacon, Boston.

<부록 1>

어학연구소 외국어 강좌 변천 과정
1993학년도 (1993. 3~1994. 2)

밑줄 부분은 새로 개설된 강좌를 나타내거나 전 학기와 비교해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나타냄.

가. '92, '93 겨울학기까지

강사: James Foley, Julian Hadland (영어회화 담당); 강권순, 강조미 (일어담당)

영어회화: 8반 (120명 정도)

일어 (문법·독해): 2~3반 (100~150명 정도)

나. '93 봄학기 (전체 학생수: 576명)

강사: 이영숙, 채희락, 최인철 (영어 독해/청해 담당); James Foley; F. Masson (불어회화 담당); 강권순, 강조미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1반 (51명), 시사영어 1반 (117명), TOEFL 2반 (191명)

영어회화: 4반 (69명)

초급불어회화: 1반 (13명)

일어 (문법·독해): 3반 (135명)

다. '93 여름학기 (1,523명)

강사: 안병규, 윤정미, 이영숙, 채희락, 최인철; James Foley; F. Masson; 강권순, 강조미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4반 (236명), 시사영어 2반 (232명), 어휘 2반 (263명), TOEFL 2반 (358명), 영어종합반 1반 (187명)

영어회화: 집중코스 2반 (31명)

초급불어회화: 1반 (13명)

일어 (문법·독해): 3반 (203명)

라. '93 가을학기 (1,227명)

강사: 안병규, 윤정미, 채희락, 최인철; James Foley, Kathleen Kang, Isidor Kim; F. Masson; 강권순, 강조미, 니시야끼 미즈루, 다까사카 미즈루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5반 (265명), 시사영어 1반 (112명), 어휘 1반 (102명), TOEFL 2반 (202명), GRE 2반 (114명), 영어종합반 1반 (102명)

TOEFL의 한 반은 청취반으로 운영.

영어회화: 10반 (151명)

불어회화: 2반 (23명)

일어 (문법·독해): 3반 (156명)

마. '93, '94 겨울학기 (1,553명)

강사: 송미정, 안병규, 윤정미, 채희락, 최인철; James Foley, Kathleen Kang, Isidor Kim; Jose Maria Areta (서반아어회화 담당); 강권순, 강조미, 니시야끼 미쯔루, 다카사카 미쯔루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6반 (309명), 시사영어 2반 (198명), 어휘 1반 (103명), TOEFL 1반 (100명), TOEFL 청취 2반 (178명), GRE 1반 (102명), 영어종합반 1반 (103명)

영작문: 2반 (33명)

영어회화: 16반 (256명)

서반아어회화: 2반 (22명)

일어 (문법·독해): 3반 (159명)

바. '94 봄학기 (1,471명)

강사: 송미정, 안병규, 윤정미, 채희락, 최인철; James Foley, Kathleen Kang, Isidor Kim; F. Masson, Frank Gruenert (독어회화 담당), Jose Maria Areta, E. V. Popova (노어회화 담당); 강권순, 강조미, 니시야끼 미쯔루, 다카사카 미쯔루

영어 독해/청해: 고급영어청취 10반 (452명), 시사영어 1반 (102명), 어휘 1반 (102명), TOEFL 1반 (132명), TOEFL 청취 1반 (108명), GRE 1반 (68명)

영작문: 5반 (76명)

영어회화: 15반 (225명)

불어회화: 2반 (16명), 독어회화 2반 (25명), 서반아어회화 2반 (16명), 노어회화 1반 (10명)

일어: 문법·독해 3반 (107명), 회화 2반 (32명)

- (7) 일회의 수업분량은
a. 1시간, b. 1시간반, c. 2시간, d. 2시간반, e. 3시간
- (8) 수업시간은
평상시: a. 오전 9:00 이전, 학과시간 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4:00/5:00/6:00) 이후
방학중: a. 오전 9:00 이전, 학과시간 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4:00/5:00/6:00) 이후
- (9) 각 강좌에 대한 수강료는 (평상시, 방학 중: 1.5시간/2시간×2회/3회
×8주/6주 단위당, 대단위반 15,000원, 중단위반 (GRE, 고급영어청
취) 30,000원)
a. 너무 비싸다, b. 비싸다, c. 적절하다, d. 싸다, e. 너무 싸다
- (10) 본 연구소의 외국어 교육과정이나 강좌들에 대한 바람이나 건의사항
을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부록 2-2 (Q2)>

수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강의명: 담당강사: 학기: 199○년 ○○
 학 년: 학 과:

\$\$\$ 다음 사항에 공표나 말로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 강좌를 수강하는 언어외적 목적
 (a. 대학원 시험, b. TOEFL, c. GRE, d. 취직 시험, e. 기타: _____)
 준비
- (2) 이 강좌를 수강하는 언어기능상의 목적
 (a. 듣기, b. 말하기, c. 읽기, d. 쓰기, e. 회화, f. 종합) 능력 배양
- (3) 이 강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
 a. 문법, b. 어휘, c. 독해, d. 청해, e. 기타: _____
- (4) 이 강좌의 수업을 (a. 우리말, b. 영어, c. 혼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5) 진단평가, 총합평가 등 각종 시험이 도움이 (a. 될 것이다, b. 안될 것
 이다).
- (6) ㄱ. 본 연구소에서 개설한 영어 강좌 중 지금까지 수강한 과목명
 a. 영어회화(회), b. 영어종합반(회), c. TOEFL(회),
 d. 어휘 (회), e. 시사영어(회), f. 고급영어청취(회)
 ㄴ. 지금까지 수강한 강좌(들)에서 본인의 출석률이 낮았다면 그 이유
 는
 a. 강의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 b. 수업이 비효율적이어서,
 c. 바빠서, d. 기타: _____
- (7)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명
 a. 영어회화, b. 영어종합반, c. TOEFL, d. 어휘, e. 시사영어,
 f. 고급영어청취

(8) 증설·신설을 원하는 과목

- a. 인문사회강독, b. 자연과학강독, c. GRE, d. 영작문,
e. 기타: _____

(9) 수업 횟수, 분량, 시간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ㄱ.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

평상시: a. 1회, b. 2회, c. 3회, d. 4회, e. 5회, f. 6회

방학중: a. 1회, b. 2회, c. 3회, d. 4회, e. 5회, f. 6회

ㄴ. 일회의 수업분량

a. 1시간, b. 1시간반, c. 2시간, d. 2시간반, e. 3시간

ㄷ. 수업시간

평상시: a. 오전 9:00 이전, 학과 시간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5:00/6:00) 이후

방학중: a. 오전 9:00 이전, 학과 시간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5:00/6:00) 이후

(10) 이 강좌에 대한 바람이나 건의사항

<부록 2-3 (Q3)>

수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강의명: 담당강사: 학기: 199○년 ○○
학 년: 학 과:

\$\$\$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정도를 5에서 1 중의 한 숫자에 공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항목이 해당과목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하십시오.

(5: 적극 찬성, 4: 찬성, 3: 보통 또는 미정, 2: 반대, 1: 적극 반대)

- | | |
|---------------------------------------|---------------|
| (1)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강좌가 좋았다. | 5, 4, 3, 2, 1 |
| (2) 강사의 강의 준비가 항상 철저히 되어 있다. | 5, 4, 3, 2, 1 |
| (3) 담당과목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 5, 4, 3, 2, 1 |
| (4) 지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5, 4, 3, 2, 1 |
| (5)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효과적으로 고무시킨다. | 5, 4, 3, 2, 1 |
| (6) 학생들의 질문이나 토론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 5, 4, 3, 2, 1 |
| (7) 수업의 목적, 목표가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 5, 4, 3, 2, 1 |
| (8) 한 학기 동안 배울 강의 계획표가 제시되었다. | 5, 4, 3, 2, 1 |
| (9) 강의내용이 쉽거나 어렵지 않고 아주 적당하다. | 5, 4, 3, 2, 1 |
| (10) 매 시간마다 강의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 5, 4, 3, 2, 1 |
| (11) 과제물이 해당지식의 획득에 아주 효과적이었다. | 5, 4, 3, 2, 1 |
| | 해당 없음 |
| (12) 과제내용이 항상 명백했다. | 5, 4, 3, 2, 1 |
| | 해당 없음 |
| (13) 이 과목을 다른 학생들도 선택하도록 권하고 싶다. | 5, 4, 3, 2, 1 |
| (14) 내가 들었던 과목 중 가장 흥미있는 과목의 하나이다. | 5, 4, 3, 2, 1 |
| (15)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운 점이 아주 많다. | 5, 4, 3, 2, 1 |
| (16) 사용한 교과서, 교재가 실력향상에 아주 효과적이다. | 5, 4, 3, 2, 1 |
| (17) 나의 언어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 5, 4, 3, 2, 1 |
| (18)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 | 5, 4, 3, 2, 1 |
| (19) 수업시간 외에도 담당강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 5, 4, 3, 2, 1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중에 강의 전반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부록 3〉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실시 시기와 횟수

1. Q1: 가을 1회 실시
 2. Q2: 봄, 여름, 가을 3회 실시
 3. Q3: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 실시
- # 봄에 실시한 Q2 설문조사는 Q1의 일부 내용을 함께 담고 있었음.

나. (Q2) 봄, 여름, 가을과 Q1 (가을)의 결과 분석

1. 강좌의 진행: a. 우리말, b. 영어, c. 혼용
 - 봄: a. 25, b. 81, c. NA (7)
 - 여름: a. 49, b. 175, c. 413
 - (Q3) a. 31, b. 100, c. 177
 - 가을: a. 37, b. 116, c. 274
 - Q1: NA

여름에 실시한 Q3에는 이 항목이 들어 있었음.
영어회화반은 계산에서 제외되었고 고급영어취취반의 경우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봄(14:5), 여름(26:20:70), 가을(29:37:115).
2. 강좌 중 실시하는 각종 시험: a. 도움이 된다, b. 안 된다.
 - 봄: a. 98, b. 30
 - 여름: a. 544, b. 78
 - (Q3) a. 240, b. 69
 - (a. 재미있다: 145, b. 부담스럽다: 59, c. 상관없다: 116)
 - 가을: a. 431, b. 94
 - Q1: NA
3. 출석률이 낮았던 이유: a. 강의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어서, b. 정규 학점과목이 아니니까, c. 수업이 비효율적이어서, d. 바빠서, e. 기타
 - 봄: NA
 - 여름: a. 20, b. NA, c. 14, d. 34, e. 6
 - 가을: a. 47, b. NA, c. 16, d. 62, e. 19
 - Q1: a. 6, b. 2, c. 4, d. 8, e. 2

4.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 a. 고급영어청취, b. 시사영어, c. 어휘, d. TOEFL, e. 영어회화, f. 기타
 봄: a. 76, b. 43, c. 47, d. 25, e. 60, f. NA
 여름: a. 248, b. 65, c. 47, d. 43, e. 233, f. 57
 가을: a. 244, b. 78, c. 41, d. 59, e. 248, f. 30
 Q1: a. 15, b. 5, c. 4, d. 20, e. 40, f. 8

5. 중설, 신설을 원하는 과목: a. 인문사회강독, b. 자연과학강독, c. GRE, d. 영작문, e. 기타
 봄: a. 24, b. 14, c. 56, d. 61, e. 6
 여름: a. 91, b. 62, c. 159, d. 250, e. 2
 가을: a. 54, b. 41, c. d. 280, e.
 Q1: a. 9, b. 17, c. d. 11, e. 1

6.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 (평상시): a. 1회, b. 2회, c. 3회, d. 4회, e. 5회, f. 6회
 봄: a. 3, b. 53, c. 57, d. 13, e. 10, f. 4
 여름: a. b. 260, c. 282, d. 19, e. f.
 가을: a. b. 301, c. 238, d. e. f.
 Q1: a. 7, b. 38, c. 24, d. 1, e. 2, f. 1

7. 과목당 한 주 수업횟수 (방학중): a. 1회, b. 2회, c. 3회, d. 4회, e. 5회, f. 6회
 봄: NA
 여름: a. 0, b. 28, c. 366, d. 68, e. 128, f. 26
 가을: a. b. 25, c. 214, d. 112, e. 133, f.
 Q1: a. 3, b. 13, c. 21, d. 13, e. 13, f. 4

8. 일회의 수업분량: a. 1시간, b. 1시간반, c. 2시간, d. 2시간반, e. 3시간
 봄: a. 17, b. 96, c. 11, d. 0, e. 0
 여름: a. b. 276, c. 280, d. e.
 가을: a. 49, b. 346, c. 133, d. e.
 Q1: a. 25, b. 36, c. 12, d. 1, e.

9. 수업시간 (평상시): a. 오전 9시 이전, 학과시간 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4시 이후)

봄: a. 83, b-c. 12, d. 44

여름: a. 354, b. 56, c. 38, d. 182

가을: a. 277, b. c. d. 185

Q1: a. 23, b. 14, c. 8, d. 22

10. 수업시간 (방학중): a. 오전 9시 이전, 학과시간 중 (b. 오전, c. 오후), d. 저녁 (4시 이후)

봄: a. 50, b-c. 80, d. 13

여름: a. 278, b. 251, c. 64, d. 30

가을: a. 183, b. 217, c. 47, d. 54

Q1: a. 27, b. 27, c. 6, d. 4

ABSTRACT

Research on Evaluating Foreign Language Teaching Programs

Hee-Rahk Chae, Jeong-Me Yoon and Inn-Chull Choi

This is a report on the research project "Evaluating Practical Foreign Language Teaching Programs", which was done in 1993 at the Language Research Institute (LR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There had been some criticism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the foreign language teaching (FLT) programs at SNU and other institutions. First, we focused on providing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LRI language teaching program at that time. We used three different types of questionnaires to get information from students: two for needs analysis and one for teaching evaluation. Second, we repeated the process of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program on the basis of the survey done in each quarter. The analyses of the questionnaires allowed us to identify what the students want to obtain from the program. The findings of the present research strongly suggest that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be given appropriate academic incentive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FLT program. We hope that the program evaluation model provided in this report sheds some light on how to improve existing programs and develop effective new programs.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449-791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20-728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36-742